

대한민국 해상풍력 1번지 전남, ‘일자리 바람’ 분다

2030년까지 14.3GW 목표...36만개 신규 일자리 전망
산업·입지 강점 최대 수혜지...순환형 경제 구조 구축

전남이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14.3GW (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36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해상풍력 잠재량의 3분의 1을 보유한 전남은 천혜의 입지 여건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번 고용 확대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이 최근 발간한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정부의 해상풍력 14.3GW 보급 목표가 달성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5만 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35%, 장기 고용이 가능한 운영·정비(O&M) 분야가 20%를 차지한다.

전국 해상풍력 잠재량의 3분의 1 (125GW)을 차지하는 전남은 명실상부 전국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꼽힌다.

연평균 풍속 7.2m/s, 수심 40m 이내의 얕은 해역, 6500km에 달하는 해안선 등 천혜의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전국 해상풍력 허가 물량의 60% 이상이 전남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조선, 해양플랜트, 기계산업 등 기존 제조 인프라가 결합되면서 해상풍력 산업의 전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갖췄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이러한 전남의 경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총 설비용량 3.2GW, 민간투자 20조원 규모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단일 해상풍력 단지다. 단지는 10개 세부 구역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순조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동접속 설비 구축도 함께 진행 중이다.

도는 해상풍력 기자재·설치·운영 기업을 유치하고,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중심으로 터빈·타워·블레이드·전선 등 주요 기자재

산업의 집적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도는 기자재 생산기업과 물류·운송·유지보수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상풍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 기반의 교육기관 설립과 기술개발 거점 조성도 추진 중이다.

도는 해상풍력 산업을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도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도 발전시키고 있다. 도는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추진해 2035년까지 해상풍력 16GW, 태양광 5.4GW 등 총 2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조성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이미 신안군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바람 연금’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해 지역 순환형 경제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국내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올해 10월 기준 0.12GW로 정부 목표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목표 (2030년까지 14.3GW 달성) 대비 실제 운용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터빈·블레이드·나셀 등 핵심 부품의 낮은 국산화와 전문 인력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국산화가 지연되면 대규모 단지가 조성돼도 고용과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으며,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도는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배후항만 확충, 송전망 조기 구축, 주민참여 확대 등 기반 조성을 강화하며, 정부와 협력해 지역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해상풍력 1번지로,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춰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서울 코엑스 오픈미팅룸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면담을 갖고 ‘오픈AI 시데이터센터’ 등과 관련해 SK 그룹 투자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최태원 만났다...AI 데이터센터 ‘속도’

〈전남도지사〉 〈SK그룹 회장〉

첫 면담서 협력방안 논의...도, TF 구성 등 신속 지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 2025’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SK-오픈AI 합동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1일 발표된

‘OpenAI-SK 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블루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면담에서 전남도와 SK그룹은 OpenAI 전용 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조기 착공을 위해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서울에 지원센터도 신설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전남도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가 확정되면 글로벌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SK그룹이 전남 AI데이터센터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도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력을 계기로 전남이 대한민국 AI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 개방 어디까지

광주시, 10월 말 기준 6개 공구 개방률 34%~93%

금호지구 인근 지연...강기정 시장, 내달 완료 배수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의 상부도로 개방률이 34~9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시장직까지 내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도로 개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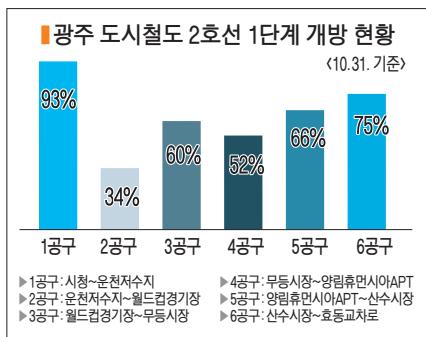
한이 50일 남짓 남은 상황이라서 남은 기간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6공구 도로 개방률은 34~93%를 기록하고 있다.

공구별로는 1공구 93%, 2공구 34%, 3공구 60%, 4공구 52%, 5공구 66%, 6공구 75% 등이다.

가장 개방률이 낮은 곳은 2공구로, 서구 금호지구입구 교차로에서 월드컵경기장 구간까지다.

이 구간은 거대 아파트 발견돼 토목공사가 늦어진 데다, 7~8월 집중호우와 상수도관 파열로 공사 구간이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정이 지연됐다.



침수 피해로 고압 전력선 안전화 조치가 늦어지며 한국전력과의 협의 절차가 지연, 다른 구간보다 도로 복구율이 낮았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 책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2025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으로, 국립 “국민의 힘” 재단이 후원한 공익광고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질병관리청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신의 혈관은 정상 인가요?

누구나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력처럼, 혈관 건강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